東亞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合十面

社說

災害景氣와 그對策 — 米價暴騰을 抑制하라

一

[illegible]

二

[illegible]

三

[illegible]

明春米海軍機의 編隊飛行을 計劃

布哇의 眞珠灣을 中心으로

젼손少將正式發表

【紐育二十七日發聯合】 美國海軍當局은 一九三五年一月以降을 期하야 카리비아海와 太平洋上에 相關關係하야 編隊長距離飛行을 決行하기로 決定, 海軍航空隊根據地司令 젼손少將은 二十六日 右飛行計劃을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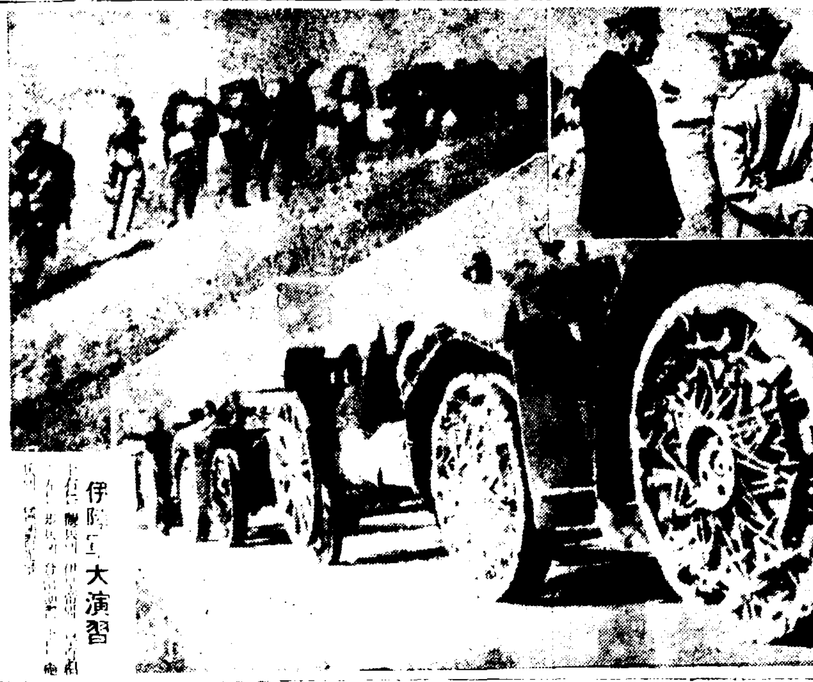
一、[illegible]

一、카리비아海飛行은 [illegible]

中、理事國落選後 「自力自救」提唱

顧、王兩巨頭의 意見

【上海特信】 蘇聯의 聯盟加入에 依하야 中國側에서는 [illegible] 一方 聯盟에 失望을 表하는 同時에 他一方으로는 「外力無用」「自力本位」를 [illegible]



伊陸軍의 大演習

五全大會앞두고 南京 西南 間抗爭激甚

蔣氏의 獨裁權確立에 西南派는 極力反對

【上海特信】 來十一月十二日부터 南京에서 開催되는 國民黨第五次全國代表大會를 앞두고 [illegible]

一、國民會議召集、憲政實行

二、國民黨總規章의 修改、黨總理制恢復、委員制取消

三、黨務의 改革及 促進、黨의 獨裁的統一實現

四、施政方針의 [illegible]

[illegible]

一、國權喪失의 責任을 [illegible]

二、파시즘衣社의 禁止

三、抗日外交方針의 確立及 抗日國防計劃確定

四、最低限度의 [illegible]

伊中親善

駐中公使等 大使館으로 昇格

【電通上海二十七日發】 [illegible]

米穀統制法의 最高價格을 突破

政府米의 拂下申請이 始作

標準米價三十圓臺

【電通東京電話】 最近米價의 奔騰은 [illegible]

政府所有水浸米도 賣却하기로決定

【電通東京電話】 [illegible]

一、賣却米의 種類

二、[illegible]

三、賣却의 方法

四、保證金

五、其他詳細한 事項은 [illegible]

滿鐵、北鐵을 合倂 大鐵道會社設立

不遠根本的改組實現

【大連二十七日發聯合】 [illegible]

臨時議會召集

今日閣議에서 決定

◇藏相도 大體로 同意

【電通東京電話】 臨時議會召集 [illegible]

若槻總裁演說要旨

【電通東京電話】 民政黨支部長會議에서의 若槻總裁의 演說要旨는 如左 [illegible]

아프가니스탄도 聯盟에 加入

【電通제네바二十七日發】 聯盟總會 [illegible]

不時着까지의 狀況判明

二十六日訊問開始

【電通滿洲里二十六日發】 [illegible]

岡田首相談

【電通東京電話】 岡田首相은 [illegible]

◇土木局

◇社會局

◇衛生局

◇救護土木事業의 振興

內務省議會의 提案項目決定

十月初旬召集困難?

【東京電話聯合】 內務省에서는 二十七日午後二時十五分부터 [illegible]

後藤內相의 被害地視察談

【東京電話聯合】 [illegible]

夕刊後市況

▲橫濱生糸後止

▲福井人絹後止

日本一安い保險

低率保險の始祖

日華生命

本社・東京・日本橋

支店 支部 東京 大阪 京都 神戸 名古屋 横濱 廣島 岡山 松本 新潟 金澤 仙臺 秋田 千葉 水戸 盛岡 熊本 小樽 京城 臺北 滿洲 布哇

ClibPDF - www.fastio.com

災後大阪에 惡疾流行
患者四百卅餘名
하로에 發生件數 九十八名
感氣、泄瀉는不知其數

【대판二十七일발전보연합】 비가 몹시 오고 폭풍이 지나간 二十六일에 대판(大阪)시중에 발생한 전염병 환자는 九十八명이나 되는데 재류시민은 극도로 전율하고잇다 ▲장질부사 二十一명 ▲성홍열 三명 ▲지부테리아 三명 ▲유행성뇌막염 二명 ▲이질 七十명 인데 二十一일재해이래의 전염병환자합계는 四백三十七명이나 되고 이밖에 감기, 설사등의 환자는 수가없이 많다고 한다.

俸給月額의 百分一醵出
高等警察課員

【경성전화연합】 二十七일의 정례과장회의(定例課長會議)에서 단오 전부(?) 장관(長官)도 립 양사파원은 금번의 풍수해의 참상에 대하야 상세히 보고한후 어떠가지 [illegible] 봉급월액의 백분의 一을 내어 의연금으로써 재해지에보내기로 결정하고 즉시 관계당국과 관정에 그결의 안을 통지하기로 하엿다고 한다.

大阪災民爲해 奬產社에서同情
정성으로본사에의뢰

【경성】 서일본(西日本) 일대를 습격한 전례없는 대폭풍우의 피해로 수만의 조선인은 하로아침에 생명과 재산을 일코 의지할곳없이 헤매인다는 보도를 듣고 부내 장산사(奬產社)에서는 그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많았고 또 조선사람이 가장 많이사는 대판지방의 이재조선인에게 전달하여주라고 돈五원을 二十七일 오후에 본사에의뢰하엿다.

職業周旋憑藉 村老人을詐欺

【영동】 농촌소년들의 직장을 소개해준다 빙자코 그부모로부터 소개료를 받아가지고 흔적없는소년들을 데리고 경성방면으로 도망하다가 당지경찰에 피체된자가잇다. 그는 본적을 영흥군이가면사흥리(永興郡仁興面新興里)에둔김명원(金明源)(二三)이라는데 지난 十일경 고원군군내면 도정리(高原郡郡內面道淸里)에 가서 몇몇의 농촌노인들을 꾀여 그아들들의 직업을 소개해준다는 구실하에서 직업소개료를받고 취직알선 [illegible]

福빈이수는 점쟁이逮捕

양덕군양덕면 고모리 사는 점쟁이 [illegible] 지난二十七일 [illegible] 체포되어 목하엄중히 취조를 받고있다.
그는 부내창신동(昌信洞) 六백 二十七번지 김춘강(金春崗)(二○)으로 재작년부터 병사로 [illegible] 전마니며 기도도 하여준다고 한번에 十원씩받고 [illegible] 작년三월소에 부내[illegible]동(?) 거주 김영범(金永範)이가 김제(金堤)경찰서에 잡히게될때 그 의 처윤(尹)씨에게 기도로 그 의남편을 나오도록하여준다고 속이고 현금三十원을 편취하고 수일전에 [illegible] 의 의뢰를 받은 네소녀들을 인솔하고 아모런 표도없이 함흥방면으로 도망하다가 양덕(陽德)부근에서 당시 경찰에게 피체되어 이래 유치취조를 받아오는 바 지난二十五일 송국되엿는데 그는 전과五범의 사기전과자라 한다.

大阪在留朝鮮人被害慘狀
（上）大正區小林町에서 젖은의복말리는것（下）해는저물고 갈곳없어 헤매는 災民들

龍山署에서 突然活動
靑年、學生等檢擧
최성호외 학생三명을 인치취조
讀書會組織의嫌疑

시내 용산경찰서(龍山警察署) 고등계에서는 얼마전부터 비밀리에 활동을 계속하여 오든중 二十六일 오전 七시경에는 전평동(平洞) 二十一번지에 잇다가 피신하여 다니든 최성호(崔成浩)(二三)를 시외 아현리(阿峴里) 三十八번지의 十二호에서 체포하는동시에 다수의 좌익서적을 압수하고 방금 엄중히 취조를 하고 잇는데 사건의 내용은 독서회를 조직하여 비밀히 무엇인가를 하여온 모양이며 수일전 학생 三명을 인치취조하였다. 최성호는 경성공업학교(?) 중학을 [illegible] 모전문학교 예과 [illegible] 중퇴하고 지금까지 [illegible] 오든자라 한다.

反滿軍과激戰

【전령하얼빈 二十七일발】 길림성의산(密山)에서 길본부대(吉本部隊)는 二十五일 오후六시반경 반재하(半截河)동남방三리 지점에서 약三백명의 반만군과 충돌하야 약三시간이나 격전을 하엿는데 이전투에 일본군은 [illegible] 병 중경상 六명을 내엇다.

載寧明新學校에
全財產五萬圓寄附
財團法人期成에 큰 曙光
◇朴泰煥氏가喜捨

【재령지국전화】 재령에 잇는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인 명신학교(明新學校)의 이사 마대한 박태환(朴泰煥)씨는 금년 六十이넘는 노인으로 생전에 노력하야 모은 전재산 전답八十만평을 동교재단법인으로 학교에 기부하엿다. 이것이 돈으로환산하면 五만원 이라는데 이로써 동교재단법인 기성에 큰 서광이 비치엇다한다. (사진은 박태환씨)

兄嫂土地移轉 시아우걸어告訴

【사리원】 용천군용천면 부동(龍川郡龍川面府東洞)三一五의 파덕(咸寶德)(?)이라는 과부는 시아우 황신호(黃信浩)와 부내약주정(若竹町)이광국(李光國)등을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엿는데 그 내용은 황신호가 그형이 사망한후 그 가 과부가 재산을 상속하엿는데 이지음 자기소유인줄로 알앗든 전기지답 五三八의 논 二천七백八十평이 경매된다는 말을 듣고 등기부를 보즉 시아우 황신호가 어느사이엔가 부모가 사망하엿을때에 가독상속에 의한 전기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엇을뿐외라 소외 이홍갑(李弘甲)이가 권 보존등기와 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는 고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엿는데 그소장에 의하면 [illegible] 황신덕(黃信德)은 아들을 나치 못하고 二十四년전에 사망하엿고 그후 남자로 가독을 [illegible]

居昌平野에 또雹災騷動

【거창】 경남거창군남상면(居昌郡南上面)、주상면(?)、가북면(加北面)등지에는 지난 二十四일 오전 十시경에 우박이 二十분동안이나 쏟아지며 제방이 무너지는 [illegible] 벼이삭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막대하다는데 다행한 일은 이종은 [illegible] 안되어 [illegible] 하다.

觀音堂에서
怪屍體發見
마루 아래에든 썩은 시체
打殺？病死？調査中

죽은지 여러날된 피시체 하개를 발견하야 당국에서 지금 부청(?)남을 부천군 관음당(觀音堂)이라는 절마루속에서 발견하엿다.
그는 二十七일오후 [illegible]경부내약초정(若草町) 一四六번지 송전정명(松田正明)(二三)이라는사람이 지내갈때에 냄새가 나므로 그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전기파출소에 신고하야 [illegible] 시체가 하늘의 피안[illegible] 남자의 시체가 있으므로 조사를 하여보니 시체는 사망된지 이십일 [illegible] 가 [illegible] 二十八일아침에 다시 검시하기로 하엿다한다.

京城府疑獄報告（四）
曝露된醜惡內容

그래서 元會計係員인 吉田一夫의 非行事件은 警察에 報告되엿다 即 其眞相判明치아니한다 그러나 이를 알기는 주어이니 府의 會計係長及 用度主任等의 印鑑을 僞造所持하고 右購入에 關한 書類를 마음대로 作成하고 所持의 印鑑으로 押捺하여서 上司의 決裁를 經한바와 恐惡함 敢行한것이다。物品購買要求書에는 別로 印刷의 用紙가 잇어 其의 注意書에는 品質形狀等을 詳記하는것이 잇스나 實際에 잇어서는 筆誤히 行치안코 又見本은 各係에 備付되어잇고 或은 各係又는 購買의 當務者가 特定의 商人과 結托하야 不正行爲를 하며 或者에 對하여는 備付의 見本又는 그以上에 優良한 것을 見本으로서 提出케 하야 結托하者에 對하여는 此를 見本品以下의 品位인것을 納入함을 約諾하여 주면 1은 品가 見積書를 入札하고 1은 그것보다 低入札을 하야 結局結托者에게 落札케하는 것은 極히 容易한事實이다 그러면 納入者는 如何히하여 手數料를 한다하면 不正한것을 하지 않고 여는 不正하게 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 어 [illegible] 納入方法은 講究하는同時에 其他補構의 方法을 講究하는 동시에 不正한 搬入 을 禁止하고 更正規行의 途를 嚴重하게 하는 것이 一層必要하다。
(가) 일반 사購入要求書에見本品을 添付하는 同時에 見本과 品質形狀을 詳細히 記入케하는것
(나) 購買見積의 際는 係長又는 責任者一名以上立會下에 見本을 示하고 見積케하는것
(다) 購入物件又는 檢收에 當하야 其適切의 相當嚴重히 調査를 行할 事項의 必要와 有無를 決定하는것
其他 [illegible] 實施할事 [illegible]

二、物品檢收方法의 杜撰

左의 一事例는 物品檢收方法이 如何히 杜撰함을 推知하기에 足할 것이다 即光熙門 衛生分室에 納入한 馬糧大豆에對하야 其의見本과府에서 檢收한 現品에對하야 其의品質을 比較對照하엿든때 其結果는 左와 如하다

	見本	實際
石及土塊	一斗中二十粒以內	一斗中三百九十粒
夾雜物	一斗中五十個以內	一斗中二千七十個
其他不良品		一斗中二升五合

等이 諸點은 嚴重히行하야 必要가 있는 바라 認하야 그리고不正防止의 見地에서 見本品에 比하야 不良品이 納入하엿다 [illegible] 物品이 [illegible] 檢收員立會人은 서 [illegible] 同時에 規定의 [illegible] 를 實施할 것이다

三、新品購入代金을修繕費의 名目으로支辨하고

[illegible] 그러한 事件이 其 [illegible] 있음은 다시 그의 杜撰한 一事例로서 左와如한 事實을發見하였다 即 土木課에서 昭和九年七月에 自轉車四臺修理의 必要가 있어 物品修繕申請이 있엇는데 그의修繕費金百十六圓을要求가잇엇다 그런데 右修繕費는 순이新品購入價格에 比等한것이오 새로 新車를 購入하엿는데 [illegible] 이라 하야 그러한 事務도 [illegible] 라 關係任係長 課長이 認하 [illegible] 하야 그러함을 判明하였으니 다소 [illegible]

種類	數量、買入價格	拂下豫定價格
一、取水鐵管	一、萬六百四十三圓三十四錢	百二十圓
一、同	一、一萬百四十三圓三十四錢	百五十圓
一、送水鐵管	一、五萬三千百二十圓	五百四十圓
一、冷管(?)	三千圓	六十圓
一、其他雜屑		二十圓
計	七萬六千九百六圓六十八錢	八百九十圓

四、不用品拂下方法의 缺陷

本件에 一事例에 不過하나 不用品拂下가 關內에서如何히輕視되고 又는如何히 缺陷이 包藏되고잇다는것은 左의事實에依하야 此를 窺知하기에 足하다 即水道課에서는 設備改善의結果 水源地舍本按手 이에 當하야 水道課長及係長 이를 活用如何에 依하여 此는 相當高價의 機械工具로 全然古鐵의 價格으로 決定하야 拂下品目價決定理由書를 作成한後 이를 會計係에 回付하야 會計係에서는 係員이 現物調査를 외 水源地에 派遣하야 調査케한것이다。그런데 其時 會計係員은 全然意外의 意見을 作하야 實地調査를 하엿으나 더구나 가지고 部外者에 拂下를 잇기시키고 이에 自己 拂下品의 現品의 搬出에 [illegible] 것이 判斷되엿다。水源地係員은 拂下品以外의 品物을 [illegible] 勝手로 拂下에 [illegible] 勝其(?) 買受人에게 追加引渡한 事實도잇다。그러고 그 이 拂取한 部分品의 數量等이 明瞭치안코 特히 帳簿에 何等 記載가 없는것은 [illegible] 大正十五年以來 수記(?)備品 不用에 歸하엿다

五、物品出納保管의 狀況

物品出納保管의 狀況에 對하여는 水道課光熙門分室 水源地、斷生課光熙門分室、順化院及家畜市場에서 實地調査를 하엿으나 當務者는 帳簿와 現品과의 對照를 한일이 없이 受入과 拂出에 對하여는 全然 그의記入치 아니한것 等 幾多의 缺陷을 發見하게되엿다 이라 監督者에잇어서도 이를 잘 [illegible] 地總檢査를 한일이 없고 그 [illegible] 算이 意外 [illegible] 不足이 잇으나 勿論 帳簿外의 物品도 잇어 [illegible] 任所在가 잇어서 이러한 狀態이 [illegible] 가다。이제 그 [illegible] 와 如하다。

國境에遠征한養正럭비
五戰五勝코歸定
『各地럭비熱더욱驚嘆』
◇大任마치고돌아올李監督談

養正高普럭비팀은 旣報한바와같이 國境에遠征하야 五戰五勝의 記錄的全勝의 好成績을 거두고 二十六日朝八時五十五分 京城驛着 列車로 凱旋하엿다。
一行의戰績은 다음과 가트며 이번遠征에對한 監督李鍾晥氏의 感想談에依하면 큰收穫이라고 한것은 무엇보다도 럭비熱의 地方에 만흔것에 놀래엇다하며 僻中에는 全新義州軍가트럼은 純全한 市民으로 編成되어 國境에서活躍하고잇는것과 蹴球의王國인 平壤에도 關西體育會의 後援으로 全平壤軍을 組織하야 養正軍과 接戰하엿으나 將來平壤에도 蹴球와 가치 럭비로서 그이름을 날릴날이 머지 안케보인다는것等이다。

養正24全新3
【前12—0、後12—3】
二十一日午後四時 新高運動場에서 李一成氏主審으로 열엇다。

養正42新高5
【前25—0、後17—5】
二十二日 午後三時부터 安東縣六道溝球場에서 森本氏 主審으로 第一回戰을 열엇다。

養正12新高3
【前3—3、後9—0】
二十三日 午後四時半 新高球場에서 李志煥氏 主審으로 第二回戰을열엇다。

養正21全安東3
【前5—3、後16—0】
二十四日 午後一時半부터 安東縣六道溝球場에서 李鍾晥氏 主審으로二十五分씩의게임을行하엿다

養正13全平壤3
【前0—3、後13—0】
二十五日 午後五時半부터 平壤崇仁商校球場에서 李鍾晥氏 主審으로열엇다。

西朝鮮中等蹴球
光高優勝

【平壤】 平壤府主催、西朝鮮中等學校蹴球決勝戰은 다시二十六日 四時五分부터 亦是平壤公設球場에서 盧遠三氏主審、崇商의先蹴으로開始하엿는데 開戰直後부터 崇商은決死的總攻 猛烈하엿서 光成은苦戰에入하엿으나 堅陣을 對하엿으로 無爲、十分부터 光成亦是 1개的面을開始하야 三次의 好機를 凡退하고 다시 後半에 들어 斷然優勢를 보이며 進行하더니 十分에光成RW의『패스』를 LW妙蹴하야 보기조케 門을貫通하니 이로부터 乘勝長驅、崇商은總守備에 全力을傾注한 中에도 好機를 가지엇으나 失敗無得點하더니 二十分總攻을 만하야 數次好機를 가지엇으나 失敗無得點하여 光成이優勝하야 連三年優勝의 榮冠을 쓰게되엿다。(게임六十分間)

光成對崇商戰

【平壤】 平壤府主催、西朝鮮中等蹴球決勝戰은 二年連霸의 光成對崇商의 對戰으로 明朗、强敵光成을바진 崇商의 攻擊猛烈하야 敵陣을 掩襲하기數次五分에CF의 强蹴한것으로 乘勝長驅로 만흔 好機를 敵의堅防으로물러서면서 一進一退의 攻守戰이 持續되더니 光成新次로 陣營을가다듬어 卅八分에 고울에리아 一米밖에서 어든 自由蹴을 利하야RI李君 長蹴한만하게『넷』에 걸리니 一對一 同點으로 前半을마치고 後半에들어서는 崇商의 總攻、功을奏하야 十一分RW의『파스』로 門前混戰되며다시 一點을 先取、이에發奮한 光成軍이어 十七分에 CH盧君의 長蹴으로 一點을빼아스니 二對二同點、이로부터 熱戰中央線을 넘나들며 兩軍伎倆殷出、二十四分에 다시 崇商이 一時否戰에서 脫出하면서 大擧突進하야 又復先取一點、이로부터 光成總攻으로應하야 連三次의 蹴을 내이고 몰려서더니 卅分에 門前混戰되며 同點을利하야 一點을도로빼아스니 三對三同點으로 終始兩軍得點없이 延長戰을 持續타다『타임업』되니 延長戰은없에드로 은게임』으로 明日로再戰키로되다 (戰績만은如下)

	門蹴	自由蹴	角蹴	罰蹴	得點
光成	10	7	7	0	3
崇商	12	11	4	1	3

延禧主催 本社後援 第五回全朝鮮
中等校庭球大會
대회의강령과규정기타발표
參加는二十九日까지

연희전문학교(延專)주최、본사후원의 제五회전조선중등학교정구대회(中等學校庭球大會)는오는 十월五일(금요일)과 六일(토요일)에 열리는데 이번에 대회의 강령과 규정은 다음과같다。

◇綱領
一、本大會는 中等學校의 體育精神과 庭球技能을 獎勵함으로써 目的함

◇規定
一、本大會는 全朝鮮中等學校의 庭球優勝戰을 決定함
二、本大會는 每年休期에 本校庭球場에서 舉行함
三、本大會는 最後優勝校에게 本報社에서 特定한優勝盃와 東亞日報社에서 寄贈한優勝旗를 受與하며
二、優勝校와 優勝旗는 受領한學校에서 次回大會까지 此를 保管케함
三、參加選手는 每校三組로함(但候補一組를加함)
四、一次申請한選手는 變更할수없음
五、競技方法은 七戰四勝『라운드』式으로함
六、審判에關하야는 昭和九年度大阪朝日運動年鑑에依함
七、相對的은 抽籤에依하야 此를定하되 抽籤한結果 相對便이無한時는 此를 不戰勝으로함
八、用球는 丸菱軟球로定함
九、競技開始 十分前에 出場치아니하얏을時는 棄權으로認定함
但 審判員과相對便의 承認을得한時는 此限에不在함
一〇、大會綱領、規定及審判의命令에違反한時에는 出場을停止함
一一、本規定에 記載치 아니한事項은 一切慣例와 審判員의決議에依함

그날그날
昭和九年九月二十八日(金曜日)
陰九年八月二十日(壬寅)
日出前六、二四 日入後六、二三
月出後九、一八 月入後一一、五
[illegible]

休지통

동은 받으면 방울까지 재무자의 귀중함을 칠것은 아에 표만두어야한다 ▲채무자의 빚이니라 ▲채무자의 귀중함은 침다가 봉치의 무엇이지 쁘더라도 있습이여다가 어던▲二주일 지보하고 법률적경을 다해도 치를일을 가망없이나 위자료를 내라고▲이라하야 二十七일 경성법원에 三천원을 청구하는소송을 제기▲『사이렌』돈이면요 치안호니 표기하장을 내라고하더니만▲이채권자는 빠바라 재집을 상해하실 모양이면 문제가 앉을수재 표지 [illegible] 야 이나 하여든 [illegible] 이나 힐 적구의 잘못 ▲후려갈 집행하시라도 게시고 집행을도잇이니 소소하시는 것은 분에업진 엽서▲세상에 엉터리없이 겁쟁이 양반과 무구무구 하더니만▲기실 어렵도 상감에 돈밤아어오는 이 와 집달리 씨가 멀무섭시엔은 입 라 중왕인 셈▲세상에 돈이 귀하지안흔것 아니지마는 그러타고사 람이 더귀한것도 잘아는 일이니 ▲저하야 채권자여 그대들의 주머니를 [illegible] 주는 법망서스럽게보여도 새무자를 인정하다▲사람을 대 수하게 보지안는 세상이 오면 망하지안고 겁받이 없는것이니라고 말해주니▲흥얻이 잇거던 공소나 상고를 하지어다▲三천원 위자료 청구소송의원고 피고를 내주어야 지▲글하시는 김모와 여모니라고

기침에잘듯고먹기좋은약!

지밋신은 당·기침에잘들을뿐만아니라 맛이조흥으로써 약을실혀하는 어린애라도 잘먹게됨으로 매욱유효합니다 또한 극약청 칭분이 석겨잇지안음으로 아무런부작용의염여가업스니 아모리 몸이약한어린애의게도 턴대안심하시고 먹이실수잇습니다

그럼으로 기침병중에도 가장 실한 백일해(百日咳)의특효약으로써 칭찬을밧고잇사오니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진행중에사용하시면 경과를빠르게하고 고통이 심한 발작을 다스립니다

조선에만흔 밧튼기침로인들의당·기침에사용하시면 당을삭게하고기침을가란처며 밤에잠을잘주무시게만듭니다

어느가정에도한
병식준비하서사
기침을하거든한
숙갈……잠재일
때한숙갈식……
사용하시면 자는동안에
병증의 악화를방지하고
은쾌를빠르게합니다

—一回用量—
嬰兒…三瓦、小兒…四歲前後…五瓦、八歲前後…十瓦、大人…十五瓦식…

—定價—
三〇〇瓦…一圓八十錢
一五〇瓦…一圓
五〇瓦…四十錢

チミツシン
지 밋 신

全道藥房에서販賣함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三ノ七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TY-K-2

南遊寄信

【第四十二信】 鄭寅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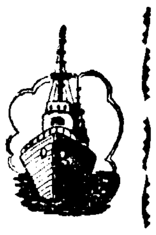
過海記(三)

遊歐途中記

巴里에서 金善琪

第二信(一)

一、下關서大阪까지



學生作品展入賞畫帖

(5)

〈上〉【初等圖畫·賞】 百日紅 ……校 金榮宋 〈下〉【初等手藝·賞】

새벽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金 …永

(一九三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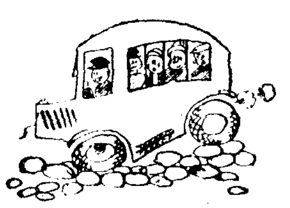
漢詩欄復活

漢詩愛好家諸氏는 中止하였든 漢詩欄을 復活하오니 一、二、三等에 …을 여드릴 터이오니 奮起投稿하시기 바랍니다.

促織 押「秋」 期限 八月末日까지

金剛山漫畫行脚

(一) 崔永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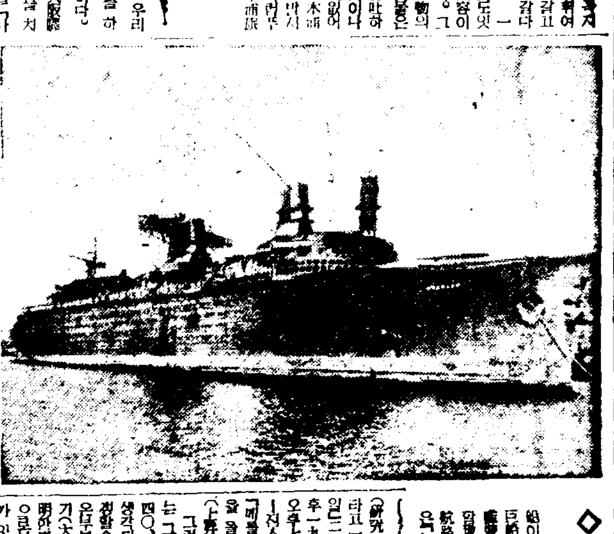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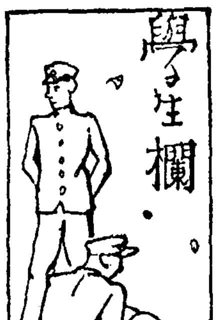
科學講座(一)

地球의 現狀

發明學會 金容瓘

【天體로서의地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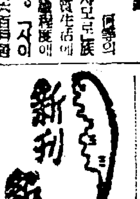




學生欄

裏南洋에旅行하고

孫商鉉



◇世界最大의商船

「노르만디」號進水

學生作品展開催中

=開會期間及場所=

九月廿二日부터十月一日까지

◆場 所=本社樓上

◆陳列點數 四百七點

陳列種目及入場料

中等部 繪畵 習字 手藝品

初等部 繪畵 習字 手工品

入場料 一般十錢 學生五錢 團體(二十人以上)三錢

主催 東亞日報社

新刊紹介

▲朝鮮之水産 九月號 定價二十錢 發行所 京城府…

▲兒童世界 九月號 定價六錢 發行所 京城府… 兒童世界社

▲新人間 十月號 定價十錢 發行所 京城府… 新人間社

▲モナミ 九月號 定價二十錢 發行所 東京市京橋區銀座…

▲新世界 九月號 定價五錢 發行所 京城府… 新世界社

▲幼年畫報 九月號 定價二十錢 發行所 平壤府…

▲獨學通信九月號 定價五錢 發行所 京城府…

▲農民旬報 九月二十日號 定價五錢 發行所 京城府…

今日프로

JODK 日曜金

晝間部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京城府廳發表

▼午後零時五分 獨唱과바이올린

夜間部

▼四時 뉴스

▼六時 (東)

▼六時二十五分 京畿講話

▼七時 뉴스、天氣豫報

▼七時三十分 京城으로부터…

▼八時 俗謠와雜歌

▼八時三十分

▼九時三十分 (東) 時報、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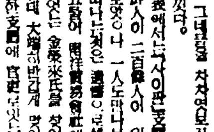
第一放送

明日프로

學生原稿歡迎

『夏休의收穫』

東亞日報社學藝部



人間問題

(47) 姜敬愛作 李靑畫

產業

今年棉作豫想

一億六千餘萬斤 生育結莿不良

總收穫은比前增加

今年의 棉作狀況은 播種當時와 生育初期의 天候順調로 發育이 良好하야 耕作面積의 增加에 伴하야 棉花의 大增收가 豫想되엇다 그런데 生育中期부터 在來棉地帶는 旱魃과 降雨로 過濕에 陷하야 生育不良되엿으며 陸地棉地帶에 在하야도 數次의 風水害로 生育을 沮害하여 全般的으로 生育이 不良하게 되고 結莿狀況은 不良이다 九月十日 現在로 反當收穫豫想은 陸地棉 九六斤 在來棉 六七斤 平均 八七斤으로 前年反當收量 陸地棉 九八斤 在來棉 七六斤 總平均 九〇斤에 比하야 減少를 示하엿으나 面積의 增加에 依하야 總生產高에 在하야는 增收의 豫想이다 卽收穫豫想高는 陸地棉 一億二千七百二十七萬四千七十四斤 在來棉 四千九十三萬五千八百三十一斤 計 一億六千八百二十一萬千九百五斤으로 이것을 前年의 實收高에 比하면 陸地棉 一千三百五十一萬二千九百八十七斤(一割一分九厘)의 增 在來棉 四百十五萬三千六百九十六斤(九分二厘)의 減 計 九百三十五萬九千四百九十一斤(五分九厘)의 增收가 豫想된다

各道府縣의 今年稻作槪況

—颱風으로漸益惡化—

農林省에서 稻不良을 發表한 今年稻作其後 作況如何는 一般으로 注目되는바가 各道府縣農會에 對하야

一、最近의 稻作柄狀況
二、豫想收穫高
三、移出餘力
四、新米에 對한 農家의 賣氣如何

에 對하야 照會하고 九月廿二日午後六時까지에 接한 情報는 左와如히 大體不作이며 今回의 近畿地方颱風에 依한 被害地는 더욱 惡化될것이 豫想된다

◇東北區

▲宮城 一、平年의 七割作 二、百十二萬石內外 三、四十萬石程度 四、賣氣는 無

▲秋田 一、現在는 全地[illegible] 晩稻도 全部出穗되고 成熟이 全般的으로 良調이다 然이나 [illegible]에 잇어서는 [illegible] 山間部水害地의 一部에 出穗遲延이잇고 作況不安이것이 全耕地의 約三分가량이다 二、百七十萬石見當 三、平年보다 二割減 四、賣氣有

◇關東區

▲東京 一、七月中旬까지 乾天續으로 不作이 豫想되엇는데 其後 天候順調이므로 平年作까지는 되엇다 二、二十七萬八千九百石內外 三、無 四、早生은 大部分賣出氣이다

▲埼玉 一、作柄不良으로 平年作의 六分減收의 內外 二、百二十六萬石內外 三、六十萬俵(二十四萬石)內外 四、價格이 不足코 相當히 賣出氣이다

▲栃木 一、今年은 七月中旬以降 二旬에 亘한 霖雨 豪雨 冷氣로 稻熱病의 發生이 甚히 多하고 合計 一萬餘[illegible]

町에 達하고 九月에入하야는 降雨가 다시잇어 作柄狀況은 前年에 比하야 顯著히 低劣되다 二、百四十二、三萬石內外 三、四十五萬石內外 四、農家收益의 現狀及 中間換金의 關係上 賣急氣勢이다

◇北陸區

▲新潟 一、平年作보다 約一割減의 豫想 二、三百二十四萬石程度 三、約百萬石 四、不況으로 賣急氣配가 잇다

▲石川 一、平年作의 五分減 二、百七萬二千石內外 三、二萬石程度 四、農家賣惜

▲富山 一、豐穰의 天候가 適當치못하야 分蘗이 少하나 穗長大의 傾向이잇고 局部的으로는 螟蟲稻熱病의 發生이잇다 二、百五十萬石(昨年에比하야約一割)平年作에 比하야 約七分減 三、八年產米約十萬石 九年產米 七十萬石 四、價格의 如何에 至大한 關係가잇는 故로 豫斷 難하다

◇東山區

▲岐阜 一、大暴風의 低溫과 八月의 旱天續으로 生育狀況은 平年보다 多少 不良하고 分蘗이 좀 少하야 作況은 平年作보다 多少 減少될 豫定 二、平年作의 百二十八萬七千石보다 多少減 三、例年의 移出 三十萬石內外 四、米의主產地는 農倉入庫를 多少爲하야 賣氣豫想

◇東海區

▲三重 一、生育은 初期八月의 天候順調로 縣下一般의 稻作狀況은 平年作이 豫想되고잇든바 九月에 入하야 日照不足과 降雨日數가 多하야 平年作보다 多少 減收의 豫想 二、百四十萬石程度 三、現在로는 移出餘力無

◇近畿區

▲和歌山 一、稍良 二、平年作의五分增收豫想 三、移出餘力無 四、賣氣는 相當할模樣

▲滋賀 一、平年作의 二分減 二、七十四萬五千石內外 三、四萬石程度 四、相當히잇을模樣

◇中國區

▲岡山 一、局部的으로는 旱魃을 受하엿으나 耕作은 平年作으로 見當되다 二、豫想收穫高의 調查는 十月에 入치안으면 判明되지안코 作柄은 昨年과 略同一한 步調이니로써 昨年의 二百一萬石程度일것이다 三、判然치안으나 過去에는 每年 移入을 差引 三、四十萬石의 移出되엿다 四、昨年은 餘剩米의 山積、統制法에 對한 不安 其他問題로 米穀事情은 前途의 暗澹을 豫想케하야 出廻期에는 賣急의 氣配가 多하엿으나 今年은 多少 對策의 餘望이잇는것과 一面 經濟事情의 上向으로 賣急의 豫想이없을듯하나 要컨대 「米의 賣物」이 必要하게되며 豫想은 困難

▲鳥取 一、平年作豫想 二、七十一萬石程度로 豫想된다 三、年三十八萬 乃至 四十萬石移出可能 四、農家의 窮狀은 現金收入에 注力할수없이 賣却을 豫想될것이다

[illegible]

一、六月上中旬의 移秧期에는 旱天續으로 移秧이 多少被害가잇고 또한 移秧이 遲延되엇다 同時에 不熟의 地도 多少잇엇다 따라서 生育分蘗을 妨害한것이 甚大하고 特히 害蟲에 對하야서 八月頃 稻熱病의 發生이 稍害 이 하엿다 二百十日及 二百二十日의 惡日은 모두 降雨와 暴風雨의 强風을 보엿는데 그 被害는 比較的 僅少하엿다 그러나 八月中下旬頃부터의 降雨는 早命으로 出穗가 顯著히 遲延시킨感이잇고 今年의 作況을 悲觀하면 豐作이라고는 할수없고 平年作 或은 多少以下로 될것이다 二、九十八萬五千石豫想 三、約十九萬七千俵의 餘力이잇다 四、目下의 米價가 持續되는 時는 地主及 小作者가 모두 賣氣旺盛이나 暴落되는 때는 大地主는 貯藏할것이오 小作者中 小地主는 經濟的之외 影響으로 米價의 如何에不拘하고 賣急의 傾向이 잇다

▲廣島 一、平年作 二、調查中 三、一個年 三十五萬俵程度 四、作況不良으로 豫想하고 先高의 豫想으로 農家는 一般으로 賣惜狀態

◇四國區

▲愛媛 一、同縣水稻作은 할수잇는 面積 四萬二千三百六十一町步中 植付不能 一千一百三十八町 植付後水不足으로 枯死 又는 減收豫想面積 三萬七千八百十八町步에 瀕하는 被害豊作의 見込은 가장 不良

=完=

平元橫貫踏查

耕地의八割이田 有畜農業도發達 【二】

崔衡鍾

平南은 四十萬町步의 耕地面積을 가지고잇스니 田面積이 三十一萬町步 畓面積이 七萬六千餘町步로 畓面積에 對하야 比較가되지 못할 만큼 田面積이 크다. 이와갈이 田穀의 優勢를 占한 平南에 잇어서는 田穀의 豐凶은 이곳 사람들의 生活에 크나큰 關係를 가지게되며 今年의 農作을 보건대 平年作도 못되고 凶作에 갓가운 모양이니 灌漑設備가 完全한 畓이 勿論 二萬町步 밧게 되지 못하니 그러[illegible]

◇平南의 耕地面積及農家一戶當耕地面積(昭和八年)

畓	[illegible]
田	[illegible]
合計	[illegible]
農家一戶當耕地面積	[illegible]

米、粟、豆(大豆、小豆、綠豆)、落花生、黍、小麥、裸麥、燕麥等이다 그리고 棉、大麻、煙草、柞蠶等이 產出되여 農家副業에 重要한 材料가 되는바이며 氣候와 土質이 果樹栽培에 適當하야 果實의 生產이 年 四百六十餘萬貫에 達하니 이것이로 朝鮮에 첫재 가는것이요 重要產地는 鎭南浦府 龍岡郡을 내세울수가 잇으니 果樹栽培戶數는 年年增加하며 經營者가 現在 三千餘名이나되여 前途에 만흔 發展을 豫期할수잇겟다. 德川紬、成川紬等의 絹織物은 古來로 平南道의 자랑이지마는 現在의 產額도 相當히 發展되여 年產 五萬二千七百七十匹이다

◇平南畜牛頭數及備考表(昭和八年)

總頭數	[illegible]
內 牝	[illegible]
牡	[illegible]
飼養戶數	[illegible]
農家十戶對牛頭數	[illegible]
對牛數耕地面積	[illegible]

나 됨을 보아 平南農家의 唯一한 副業으로 農村經濟에 크다란 役割을 하는바이며 朝鮮에서 優良品種으로 이름이잇는 畜牛도 만만하다. 平南에는 소가 만타. 그 體格이 크고 힘드는 일을 잘하고 性質조차 柔順할뿐아니라 고기맛도 一等이라한다. 가을 풀이 아즉 푸르러 茂盛한데 누런 소들이 넓은 들에 누어 풀을 뜻어 먹는 모양은 平和스럽기 짝이없으며 저곳 이곳에서 흔히 보는것이니 흐르는 [illegible] 이 또한 限量없도다. 그러나 가을 바람에 거칠어가는 들이라 봄에 기름이 흐르는 푸른 풀 밭에 겨주어 乾燥하기 짝이없구나. 풀밭에 누은 소는 언제나 배부른 平和한 表現으로 文人이 글을 지을때와 畵家가 그림을 그릴때에 생각하는 情景이겟마는 가을 들에 누은 소는 웨어디지 쓸쓸해보이는가.

右表와 如히 平南의 農家에는 三、四頭의 畜牛를 飼養함이 普通이므로 無畜牛農家가 別로 없다하여도 過言이 아닌것이며 豚을 飼養하는 農家는 畜牛에 比하야 그 數가 매우 떠러지는 形便에 잇는것이다. 이點으로보아도 南朝鮮에 落伍가 만치못한 農家보다 이곳 農家는 얼마나 餘裕가 잇음을 엿볼수가 잇지아니한가. 그리고 平南엔 畜牛市場이 이곳 저곳에 잇는데마다 盛大히 열리므로 소를 사려는사람、소를 파려는사람들이 이날에는 아침부터 거름을 재촉하는것이다. 이와같이 平南의 農民은 넓은 耕地를 所有하엿으며 農業經營에 잇어서 重要한 힘이 되는 소를 만히 가지고 잇스니 그들은 順境에서 밧갈고 가을거두는 福잇는 사람이라 아니 할수가 없으리다. 다만 그네들의 願하고 바라는 것은 雨順風調、이것이니 하누님이 作亂이 甚하면 一年勸功이 歸於水泡하야 慘憺한生活이 當場 目前에 다닥치게되고 만다. 今年의 三南水害가 이를 證明하고 잇지아니하는가 [illegible]

三南水災義捐金品

【本社接受=二十七日午後五時까지整理分】

現金貳萬九千九百圓·物品七萬四拾點

◎金貳拾七圓五拾六錢 各個別義捐額

(內譯)
拾九圓八拾四錢 加平支局主催音樂會收入金
七圓七拾貳錢 滿洲國延吉縣明月溝市監理敎會

◎金參拾四圓五拾四錢也 和歌山縣海草郡大崎村大守大崎 內務省採石工場安全光作組 勞働者一同取扱 (金參拾四圓九拾四錢也送料四拾錢除實入金參拾四圓五拾四錢也)

(內譯) 和歌山縣海草郡大崎町
拾圓 安商孝
貳圓同 尹末仙
壹圓同 安東濟
壹圓同 金粉伊
壹圓同 金學守
壹圓同 尹今同
壹圓同 金成德
壹圓同 金京守
壹圓同 王應祚
五拾錢同 全炳哲
五拾錢同 李成根
五拾錢同 李鍾伯
五拾錢同 李甲石
五拾錢同 崔伊德
五拾錢同 李海永
五拾錢同 朴允圭
五拾錢同 尹尙元
五拾錢同 崔龍駿
五拾錢同 許在永
五拾錢同 李允洪
五拾錢同 李大鳳
五拾錢同 文昌錫
五拾錢同 崔鍾泰
五拾錢同 沈守龍
五拾錢同 金龍大
五拾錢同 崔以述
五拾錢同 金乂千
五拾錢同 金永學
五拾錢同 金大之
五拾錢同 宋判□
五拾錢同 韓春甫
五拾錢同 高三敦
五拾錢同 徐明鎭
五拾錢同 辛聖鳳
參拾錢同 白点岩
五拾錢同 金泰敦
五拾錢同 金泰秀
五拾錢同 朴小云
五拾錢同 尹永植
參拾錢同 林成根
參拾錢同 鄭世源

◎金拾五圓六拾六錢也 靑石鎭分局取扱 (金拾五圓九拾貳錢也送料貳拾六錢除實入金拾五圓六拾六錢也)

(內譯) 載寧郡靑石鎭
壹圓 朴澤秉
壹圓同 李德亨
五拾錢同 金永和
五拾錢同 崔仁鎬
五拾錢同 李鳳儀
五拾錢同 李仁植
五拾錢同 李壽河
五拾錢同 元貞常
五拾錢同 鄭寶和
參拾錢同 李達根
參拾錢同 黃寶佩
參拾錢同 李命根
參拾錢同 李漢元
參拾錢同 庄川フジヲ
參拾錢同 金德日
參拾錢同 山下貞子
貳拾錢同 金熙卿
貳拾錢同 金昌九
貳拾錢同 李昌鎬
貳拾錢同 李枝英
貳拾錢同 尹德元
貳拾錢同 白樂奎
貳拾錢同 金千寶
貳拾錢同 尹淳元
貳拾錢同 金明善
貳拾錢同 金炯植
貳拾錢同 趙學寬
貳拾錢同 李鳳郁
貳拾錢同 張世昌
貳拾錢同 張世安
貳拾錢同 李炳柱
貳拾錢同 李永祚
貳拾錢同 張福永
貳拾錢同 李龍植
拾錢同 崔槙弘
拾錢同 裵大虎
拾錢同 李文姬
拾錢同 金利令
拾錢同 崔炳鉉
拾錢同 金尙燮
拾錢同 安學天
貳拾錢 新林里 奇京鎬
參拾錢 靑石鎭 宋淳玉
壹圓貳拾六錢 合成自轉車商會
五拾錢 上海商與里 本社分局
貳拾錢 新井里 金是己
同 林益善
參拾錢同 無名氏

◎金四拾四圓也 廣州韓國留學生會取扱 (金四拾八元也(中國貨幣)實入金四十四圓也)

(內譯) 廣州韓國留學生會
五元 金從華
壹元同 池天龍
五元同 金德麟
貳元同 桂應祚
壹元同 蔡洙英
壹元同 金秉一
壹元同 李順英
壹元同 金秉善
壹元同 郭□□
壹元同 李□山
壹元同 李貞浩
壹元同 陳柱順
壹元同 李貞達
貳元同 金亞德
壹元同 革新社
拾元同 李蘇民
壹元同 李于濟
貳元同 金雪洲
壹元同 金世巴
壹元同 徐尙虎
五元同 李乘勳

◎金貳圓貳錢也 鐵川支局取扱

(內譯) 鐵川郡栢谷面沙松里
四錢 金永壽
四錢同 尹錫元
五錢同 黃圭鎭
五錢同 李泰榮
四錢同 李喆遠
貳錢同 金東植
參錢同 李相昆
五錢同 方七奉
五錢同 尹若同
貳錢同 朴貞遠
拾錢同 李俊洙
四錢同 李鍾洙
四錢同 李夏雨
五錢同 尹顯亨
四錢同 金裕黃
八錢同 金乙封
拾錢同 李東善
八錢同 徐致官
六錢同 林成玉
四錢同 李奎五
四錢同 金奎鉉
拾錢同 鄭雲夏
拾錢同 鄭雲慶
參錢同 鄭吉源
參錢同 鄭南石
貳錢同 金在龍
貳錢同 金順成
壹錢同 鄭東煥
貳錢同 金萬洙
壹錢同 鄭寅亮
貳錢同 車文極
貳錢同 郭魯泰
壹錢同 金思晉
貳錢同 梁興煥
貳錢同 尹順興
貳錢同 李喆雨
貳錢同 車次童
貳錢同 郭龍甲
貳錢同 徐萬哲
貳錢同 金振成
貳錢同 徐七星
貳錢同 楊萬榮
貳錢同 車壽童
貳錢同 鄭成熙
貳錢同 朴元京
貳錢同 金彰默
貳錢同 鄭海雄
貳錢同 李長岳
貳錢同 金武卿
壹錢同 曹成得
貳錢同 李在復
壹錢同 尹鳳鶴
貳錢同 徐丙德
貳錢同 金□默
貳錢同 李炳玉
壹錢同 全順天
貳錢同 鄭五鳳
貳錢同 沈彦弼
貳錢同 金在衡
貳錢同 吳理鉉
貳錢同 盧秉國
貳錢同 李豊洙
貳錢同 李宅洙

◎金四圓貳拾錢也 金川支局取扱 (金四圓貳拾壹錢也送料壹錢除實入金四圓貳拾錢也)

(內譯) 金川郡白岩公立普通學校一同
五錢 李浩洛
五錢同 李敬根
壹錢同 崔宙淳
四錢同 任國宰
五錢同 昇世昌
五錢同 鄭在成
五錢同 崔義燮
拾錢同 吳壽鐵
五錢同 孫明錫
拾錢同 黃義顯
參錢同 朴聖南
拾錢同 李基奐
五錢同 吳慶燮
五錢同 李顯源
五錢同 李演淳
參錢同 李基興
五錢同 李杜煥
五錢同 李天源
拾錢同 李學孫
五錢同 閔完槌
五錢同 愼賢範
貳錢同 李奉國
五錢同 吳世俊
參錢同 李奎川
五錢同 李鎔煥
五錢同 朴昌善
五錢同 李敬俊
五錢同 盧載煥
五錢同 李德演
五錢同 李熙俊
五錢同 李東蒼
五錢同 李演浩
五錢同 李杜石
參錢同 李秦根
五錢同 孫元錫
五錢同 盧義鎬
五錢同 朱光龍
五錢同 李奉天

五錢同 李時東
五錢同 李鍾源
五錢同 金永煥
五錢同 金世煥
五錢同 李性九
貳錢同 崔光燮
參錢同 金貞淑
參錢同 李俊玉
四錢同 李玉姬
參錢同 鄭順女
參錢同 廉京漢
參錢同 李庚南
參錢同 李大容
參錢同 全昌吉
參錢同 李錫夏
參錢同 盧海慶
拾錢同 黃□周
參錢同 李汝修
參錢同 盧聖鎬
貳錢同 李基龍
貳錢同 李鎬喆
貳錢同 盧熙添
貳錢同 崔錫淳
貳錢同 崔元燮
參錢同 黃熙周
貳錢同 李炯根
貳錢同 吳光錫
貳錢同 李商杰
貳錢同 申貞壽
貳錢同 李萬根
貳錢同 黃友性
貳錢同 李興善
貳錢同 張順煥
貳錢同 宋範周
壹錢同 韓永鎬
貳錢同 李玉熙
壹錢同 李貞玉
壹錢同 崔鳳燮
貳錢同 李鎔燦
壹錢同 朴應南
壹錢同 李炳鶴
貳錢同 李德奎
貳錢同 崔秉迪
壹錢同 崔禎燮
壹錢同 孫商燦
壹錢同 黃義寶
壹錢同 李時榮
貳錢同 李昌鎔
壹錢同 吳昌烈
壹錢同 盧宅根
貳錢同 李東奎
拾錢同 李相直
貳錢同 尹溫求
壹錢同 尹汝求
壹錢同 李鎭浩
貳錢同 孫應柱
壹錢同 崔禧淳
壹錢同 李和仁
壹錢同 孫元俊
壹錢同 孫興律
壹錢同 吳東錫
貳錢同 李錫斗
壹錢同 黃德周
貳錢同 李鎔文
壹錢同 吳世昌
壹錢同 吳世憲
壹錢同 李燦南
壹錢同 崔良重
壹錢同 孫元祥
壹錢同 孫興祚
壹錢同 崔斗煥
壹錢同 安昌俊
貳錢同 崔昌燮
貳錢同 李命任
貳錢同 李桂童
參錢同 李大宰
貳錢同 崔敦燮
壹錢同 任順鎬
貳錢同 崔數燮

◎金貳拾九圓拾錢也 瑞興水災同情劇收入額中一部分 (瑞興支局取扱)

五拾毫 朴泳□
五拾毫 金德穆
壹元 金孝淑
五拾毫 金貞淑
貳拾毫 金昌滿
五拾毫 安炳根
壹元五拾毫 申永石
八拾毫 金昌華
五拾毫 劉年元
五拾毫 崔學模
四拾毫 安炳武

◎金貳圓貳錢也

(內譯) ▲金五圓 安永國、黃海旅館、瑞興隣保館▲金貳圓 許斗、李光興、瑞興稅務署、▲參圓 瑞興郡廳、瑞興商事務所▲貳圓 李成善、黃福鎭、金鎰三、高明俊、崔錫禮、瑞興金融組合、東實俊▲壹圓五拾錢 鄭熙淳、金光益、李宗玉、瑞興裁判所、金壹圓 金昌業、尹武炳、齋藤勝道、岡崎猶一、朴花仙、小林珠、李敬心、李貞秀、吳貴珠、金日永、金在淳、申衡國、金斗俐、洪宗承、金昌京、洪錦花、大道數一同▲金五拾錢 張大變、李圭賢、崔良稷、吳昌祚、金永浩、大德敬、金聖鎭、安鍾奎、金順圓、李春和、安致範、金永淑、李在乾、溫淳安、宋南鎭、姜泰憲、朴台東、李楠相、孫昌協、姜成千、金瑞燮、李陰全、吳龍壽、崔永洙、李淳祚、楊春淑、徐容湖、李成珊、金應淳、池寶永、金敬元、金東寶▲金參拾錢 崔七星、金斗星、朴南賢、柳德學▲金貳拾錢 金昌賢、李元植、李春實、金德三、林尙鎭、李永植▲金拾錢 宋潤金

壹錢 李德源
壹錢同 李基郁
壹錢同 李幸植
壹錢同 崔永佶
壹錢同 金東鎬
壹錢同 崔承섭
壹錢同 李彌奭
壹錢同 李俊英
壹錢同 黃仁南
壹錢同 盧載鳳
壹錢同 李和元
壹錢同 孫興德
壹錢同 李宅祚
貳錢同 李燦根
貳錢同 崔亮燮
貳錢同 崔奎英
參錢同 李昌烈
貳錢同 崔馨燮
壹錢同 李宅根
壹錢同 李秉濟
貳錢同 崔乘良
壹錢同 崔乘琳
壹錢同 李秀根
壹錢同 李泰魯
壹錢同 李春源
壹錢同 李元鎔
參錢同 崔秉錫
壹錢同 李順燮
壹錢同 孫日善
壹錢同 盧昌基
壹錢同 裵龍鳳
壹錢同 盧載洛
壹錢同 申應均

◎四圓五拾錢也 大阪西成區中開町貳丁目一三、數尾工場內鮮人職工取扱

(內譯) 五 高殷杓、洪南水、趙萬來、高順業、日、趙達仙、金昌年、宋之官、高大昊、梁千洪、雲龍、郭明辰、洪南富、李陽伯

◎金四圓九拾錢 烏山支局取扱

(內譯) 水原郡城湖面細橋里
壹圓 光成學院職員一同
九拾錢 第三學年生一同
壹圓拾錢 第二學年生一同
壹圓 第四學年生一同
九錢 第一學年生一同

小計 壹百六拾六圓四拾八錢也

累計 貳萬九千九百貳拾貳圓八拾參錢也

▲物品貳百貳拾九點 京城忠信洞忠信學院取扱

(內譯) 忠信學院
衣類二件 一學年一組 金昌洙
一件同 金思克
一件同 金明煥
七件 一學年二組 崔慶順
二件同 金王卿
一件同 趙任淑
三件同 韓相姬
二件同 朴玉順
五件同 朴貞順
一件同 崔眞福
四件同 金貞淑
三件同 李孝順
一件 一學年三組 鄭潤培
一件同 任榮彬
二件 二學年一組 尹成鳳
二件同 金天基
一件同 權範龍
一件 二學年二組 李玉粉
一件同 李貞順
三件同 鄭福童
一件 三學年 白南鳩
三件同 梁任寶
三件同 宋甲壽
四件同 金永濟
四件同 吳陳千
五件同 李敏吉
二件同 鄭有鎭
二件同 李点石
一件同 林漢甲
七件同 南貞植
五件同 金顯順
一件同 金大龍
一件同 姜明善
一件同 李栢林
二件同 梁任憲
二件同 李鍾益
一件同 李慶鎬
二件同 崔任鳳
二件同 姜月龍
五件同 尹成喜
十件 四學年 金五姬
一件同 崔英淑
二件同 孫貞心
三件同 池爽喆
五件同 金貞姬
五件 夜學部 張永玉
二件同 金仁鍾
一件同 金永順
三件同 金奉順
六件同 權然玉
二件同 韓鳳順
八件同 李福男
二件同 金有□
二件同 □玉宅
十一件同 林貞玉
四件同 李彩景
靴一件同 柳漢甲
고무신三件同 南貞植
一件同 姜明□
一件同 金泳濟
二件同 韓應濟
帳面一件 一學年一組 □奉三
一件同 朴成煥
鉛筆一件同 林辰松
四件同 李石白
二件同 南核熙
件同 金得龍
帳面二件 四學年 鄭賢基
四件同 金斗樑
二件同 金東俊
一件同 金漢鎭
二件同 金宇鐸
二件同 韓栽庸
六件同 柳点鎬
三件同 元春義
四件同 閔丙九
四件同 金尙五
五件同 李容順
一件同 李慶淑

小計 貳百貳拾九點也

累計 七萬四拾七點也

社會事業協會取扱分 (九月廿五日까지)
小計 二、六〇、二四
累計 一九四、五七八、四五

義州食刀强盜 四개월후에야잡혀

【신의주】 지난 여름五월 十五일 오전영시경 의주군 가산면 도령동(義州郡加山面□□洞)의 리소매상 한두영(韓得永)(二十)방에 침입하야 식도로 수인을 협박하고 현금三원을 강탈하고 도주한 범인 한명화(韓明和)(二三)는 수일전 고향에 몰래 돌아와 잇던중 의주경찰서원이 탐지하바가 되어 二十三일 체포되어 목하 엄중취조를 밧고잇는중이다。

全東公普校 設立期成會

【정의】 지난 二十五일에 연기군 전동면(燕岐郡全東面)사무소에서 전동공보 기성회를 개최하엿다는바 소전(小田) 군수의 원석하에 각 리구장 유지 면민이 다수 참석하야 회장선거와 위원을 선거하야 위원회를 열고 학교위치는 송장리(松長里)로 결정하고 敷地는 김봉일(金鳳一)이 기부하며 명년 봄에는 개교하기로 방침을세우고 제반사항을 가결한후 산회하엿다한다。

▲會長權五泳▲副會長柳榮然▲委員朴榮來、張承大、金榮國、李漢奭、鄭泰杰、金在九、林潤河、安炳哲、權恩準、權五亨、南成照、宋在淳、愼寶석、金敎映、金敎寶、李燦、金振興、李用鶴

平壤府新廳舍 落成式과府議員表彰

【평양】 평양부 신축청사(新築廳舍)낙성식은 지난二十六일 정오에 동청사 광장에서 거행하고 동일 오후一시에는 공회당(公會堂)에서 부회의원 이기찬(李基燦)씨외 九씨의 포창식을 거행하고 따러서 낙성기념연회가 개최되엇다고 한다。

槐山强盜逮捕

【괴산】 충북 괴산군(槐山郡)하에 낭년 강도가 나타낫다함은 그당시에 보도하바어니와 그간 괴산서에서는 범인수사에 대활동중이든바 지난二十三일에 혐의자 一명을 체포하야 엄중취체한 결과 진범인으로 판명되엇는데 그는 괴산읍 서부리(槐山邑西部里) 장영길(張永吉)(二七)로 전후범행이 수十건에 달하야 압수된 물품도 상당이 만흠으로 불일간 충주(忠州)검사국으로 송치하리라고 한다。

三曲線 (3)

張赫宙 作 李馬銅 畵

전화 三

「누구세요」

상수는 이번에도 그가 없을까 하고 가심을 울렁거리며

「나 이상수 입니다」

그때

「아 이선생이서요」

저쪽엔 여자의 소리

「강정이(姜貞姬)였구요」 아 아니 [illegible]

「글스 김급한 일이 생겨다구 직원회의를 열다나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니 부득이 한시간쯤만 더 ……」

「네— 기뿌리지오。 그때 오서두 못시안될 것입니다。 좀 늦은것이 피외에 나가긴 더조흣것같아요」

상수는 정이의 마음을 위안시키는 말을 계속하였다。

피에 개셧서요」

상수는 벌써에 못견디어 [illegible]

「다른 무슨 사람이 생겨서 못오시게 되얏다 하고 잇엇죠」

「그러면 기두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illegible]」 [illegible]

「네— 기두리지오。 [illegible]」

그러나 정이에 [illegible] 하는 설래하니 다 하기 전화를 [illegible] 여간 섭섭하지 아니하다。 하다가 하마 하고 [illegible] 뒤에 거기서 돌아온것이 [illegible] 어떤 영업주 잇게 되엇으나 [illegible] 그럼 조용히 회가 없어 [illegible] 한켜쳐럼 심심해서는 것이엇다。 그는 세계를 또 쳐다보기 시작하엿다。 학생 맛잇과 선사손님이 두엇 찾어왓엇으나 그는 강정이의 그 정열한 자태만 눈앞에 그리고 잇엇다。

×

강정이는 이상수의 [illegible] 고 화의실로 가려고 하거를 따라 불 떼어 노앗으나 전화가 별이 울리어젓으므로 그는 수화기를 놓앗다。

이상수일까 하고 그는 생각하다。 그는 이상수를 만날다는듯에 그리 큰 흐기는잇지 아닛으나。

「누구서요。」

「강정이이시오」

「네。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 강선생이오。 아、 오래간 만이오。」

「누구세요。」

정이는 이사내가 누군가 하고 알려고 애썻으나、

「나를 몰라요。」

「네。」

「아니 정말 모르시오」

「안요。 그런것두 아니지만、 얼른 생각이 나질 안는군요。」

「아니、 이런 변이잇나。 누구라。 그래요。 [illegible]」

「호호호。 그러지 마시구 누구 [illegible]」

정이는 그사내 음성이 퍽이나 귀에익은것이、 누구인지 생각나지 안엇다。

「아— 아、 나 [illegible]」

「그럼 전화 끈읍시다」

사내는 [illegible] 그게 [illegible] 지어 버엇다。

그 [illegible] 한 소리는 정이에게까지 닥어 오는것같앗다。

「잠간만 게서요。 전화 끈으시지 말구。 내 알어 마시게」

「아시는 이니까」

「네—」

「아— 그럼 정말 [illegible]」

「저…… 저…… 김선생 아니서요」

「김선생? 아따 이양반이 나의 성을 다 잡어구 하네。……」

「호호호。 그럼요。……아이 그리시지말구 누구라구 그러서요」

「하하하。 온 이런이 어디잇담。 그래 여보 여자의 머리란 그러케 기억력이 없소」

사내는 껄껄 웃고 잇섯다。

그 웃는 소리를 듯고

「앗 알엇서요。 알엇서요」

정이는 떠들석하게 소리를 질르며

「아이구 내가 온 정신을 잃엇나 봐」

하고 전화기 앞에 닥어섯다。

謹告

任記者 姜泰煥
昭和九年九月十三日 東亞日報社 羅南支局

任 長水分局長 張琪炫
昭和九年九月九日 東亞日報社 長水支局

任全義分局長 金旺玉
依願解職 全義分局長 丁泰鉉
昭和九年九月十三日 東亞日報社 烏致院支局

任記者 張□淑
依願解職 記者 金炳玲
昭和九年九月十二日 東亞日報社 茂山支局

任岐川分局長 朴淑永
依願解職 岐川分局長 朴□□
昭和九年九月一日 東亞日報社 寧邊支局

任孟中里分局長 韓吉燮
依願解職 孟中里分局長 □□□
昭和九年九月十五日 東亞日報社 博川支局

任會文分局長 金昇南
依願解職 會文分局長 吳永鎬
昭和九年九月十五日 東亞日報社 □朱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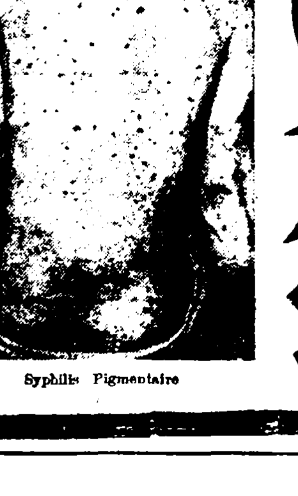
梅毒 胎毒에

藥力隨一 水銀劑 內服用

製法專賣特許

コロイゲン (콜로이겐)

梅毒性色素增殖症



Syphilis Pigmentaire

正當한梅毒治療의大道

[illegible]

六〇六號보나나은眞價

[illegible]

コロイゲン의驚異的偉力

[illegible]

適應症

[illegible]

定價

[illegible]

淋疾에는

內服用水銀劑와 銀劑二元素綜合療法

パピン

專賣特許製法 第九五六〇八號

[illegible]

全國著名藥店에서販賣함

[illegible]

藤澤水銀研究所

ClibPDF - www.fastio.com

秋期家庭講座 【其二】

라조지(辣子鷄)와 빤양사이(拌京菜) 其他

中國料理大家 鄭順娘

辣子鷄 (라조지) (닭고기와 고초로볶는것)

재료

닭(中마리) (한개) … 죽순 … 생강 … 파 … 고초 … 호초 … 사장 … 가루 … 설탕

맨드는법

[illegible]

炸魚球 (짜위추) (생선완자)

재료

생선한마리 … 계란 한개 … 파 … 생강 … 호초가루 … 소금 … 갈분가루 … 기름

맨드는법

[illegible]

拌京菜 (빤징채) (세이양 냉채)

재료

[illegible]

맨드는법

[illegible]

學生作品展入賞者訪問記

初等 도화(賞)

惠化公普校 六年 李德宰 (十六歲)

[illegible]

新映畫

紅髮

루나르 原作 / 듀비비에 監督

[illegible]

開會

第一回拾栗大會

追憶의 앨범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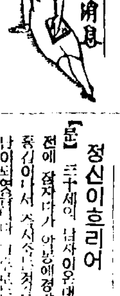
[illegible]

女性界消息

京城保育學校 修學旅行

경성보육학교에서는 작기와 같은 일정(日程)대로 수기수학여행을하게되엇습니다.

一年生四十一名은 吳天錫、金孜權、朴興熙씨등先生님의솔 ... 開城朴淵瀑布로 가게되엇고 二年生三十三名은 獨孤璇、洪永厚두선생님 인솔하에 九月二十 ... [illegible]



紙上病院

정신이흐리어

【문】 三十세의 남자이온데 [illegible]

【답】 [illegible]

潤製ライオン齒磨

果然人氣의渦紋을捲起한此新製品!

紛과煉과의中間되는原料配合의妙!

定價拾六錢

此齒磨로서此特色

濕氣가잇어서、가루가 날지아는故로、애기네들이쓰시라도、衣服을더러필念慮가없읍니다

더구나、그香味의爽然함과、뒷맛이快適함이며、

其原料紛末의 微細함과、그價格의 低廉함等等、

實로絶讚의的이되어잇읍니다。

ライオン齒磨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東京・大阪・名古屋

陰○ 早○發 小短 / 不感症 急速治療法

醫學博士 中井卓次郎著

가을날긴긴밤에 性愛聖書

◇…靑春의多幸、[illegible]

◇…그대여、體力에精力에、果然[illegible]

◇…그러기에、靑春을、健康을、疲勞[illegible]

內容의一部

○早○와不感症의根原과其治療法
○陰○의原因과其治療法
○新郎新婦時代의性愛生活
○妻의不感症을 偏이고치는法
○細君性教育 ○男偏의남용禁斷
○中年夫婦의性的倦怠切拔法
○男性生殖器의發育不良新療法
○性器障碍의根本療法
○月經閉止婦人의性愛生活

實價 二十錢 (送料不要) 切手代用(　)

東京 帝國醫學社

東亞日報販賣所 [illegible] 金剛商會 [illegible]

淋疾新療藥 도리도-A

本舖 盛大堂製藥所

우리옷감 대극성광목

本社京販

皮膚泌尿 花柳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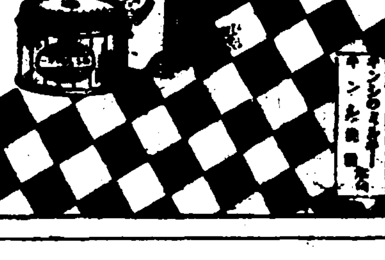
醫學博士 渡邊晋

高價買入

杉山商會

株式會社 海東銀行

京城 [illegible] 頭取 金季洙

東洋의名花 キンシクリーム (킨시크림)

肌膚를젊고健全하게
마음껏 힘껏
艶麗한고흥을더하다。
눈파같이산에도 아니다…。